

공정무역 커피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호기금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공정무역 커피 생산지의 현황

[INDEX]

- 1회 지금 왜 공정무역인가
- 2회 커피 한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 3회 커피가 '레드오션'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 4회 스페셜티 커피 분야에 공정무역 커피를 가져오다
- 5회 성평등에 기여하는 공정무역 커피
- 6회 공정무역 커피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호기금

네스프레소와 협력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공정무역 아구아다스 협동조합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지 '공정무역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변해버린 공정무역 커피 생산지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6회 간의 연재를 마무리한다. 짧은 글이었지만, 커피앤티 독자들에게 공정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네스프레소 마스터오리진 인도네시아(좌)와 버쥬오 콜롬비아(우)

글로벌 커피 기업들은 어떻게 공정무역을 하고 있을까?

글로벌 커피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곳곳에서는 그들의 미래 시장 전략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공통점은 '지속가능성'이었다. 공정무역은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도 글로벌 경제·사회·환경 기준 모두를 충족시킨다. 지속가능성이 글로벌기업의 척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무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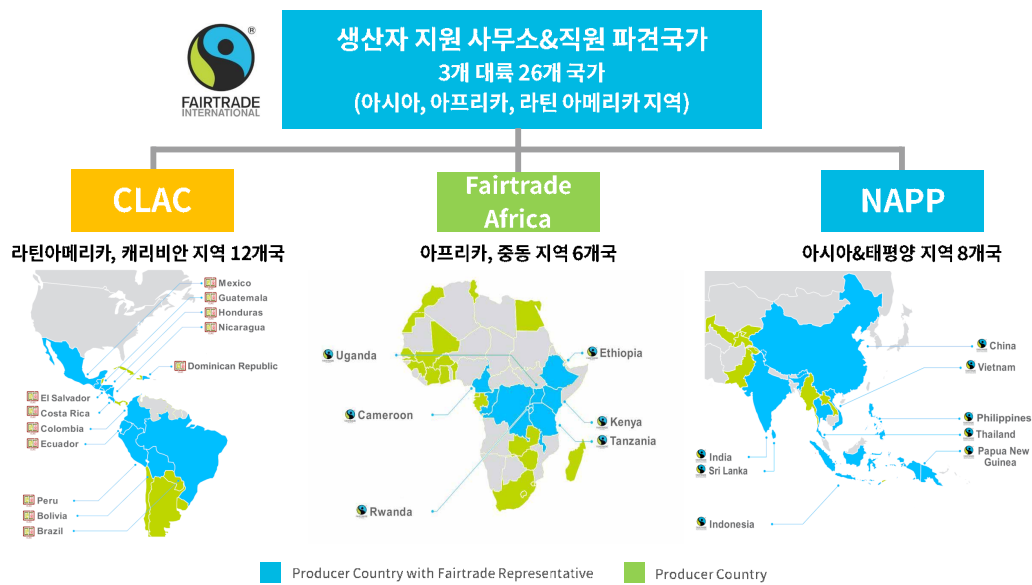
대표적인 사례로 네스프레소(Nespresso)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네스프레소'하면 인기 드라마 PPL의 단골로 등장하는 커피 머신, 광고 속의 조지 클루니 등을 연상할 수 있다. 하지만 네스프레소는 2013년부터 국제공정무역기구와 손잡고 회복력을 갖춘 농민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행보로도 유명하다. 네스프레소의 공정무역은 커피 산업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농민 및 노동자들과 협력해왔다.

네스프레소는 2018년 더욱 뛰어난 품질의 커피를 위해 일반 원두 대신에 각 커피 산지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의 커피 장인들과 함께 최적의 가공법을 적용해 만든 마스터 오리진을 출시했다. 이중 인도네시아, 버쥬오 콜롬비아 2종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았다. 네스프레소는 국제공정무역기구와 파트너십을 통해 품질,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모두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커피 농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2017년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아체 중부 지역의 1,800명이 넘는 농민들에게 아라 카하야니 가요(Ara Cahayani Gayo)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고 공정무역 인증까지 획득하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네스프레소와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콜롬비아 정부와 협력해 세계 커피 역사상 최초로 커피 재배 농가를 위한 퇴직연금기금을 마련해 콜롬비아 커피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커피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삶과 생산 모두 지속가능하게 되고 커피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네스프레소는 최상급 커피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무역과 함께 최근 추진하는 네스프레소의 캡슐 재활용, 그린 모먼트 정책 등은 시너지



(위)엘살바도르 엘 순사 생산자조합이 일하는 모습 / (아래)인도네시아 아라나카타 생산자조합이 [THANK YOU FAIRTRADE]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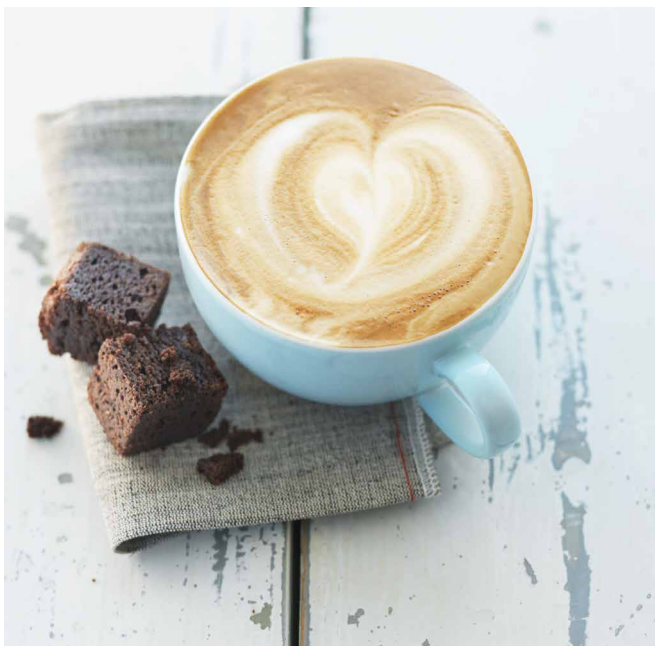
국제공정무역기구 대륙별 생산자 사무소 (생산자 네트워크)

를 발휘해 미래 커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슈퍼마켓 체인인 까르푸(Carrefour)는 프랑스 최초로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취급한 유통기업이다. 수백 여개의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다루는 까르푸는 공정무역 인증 상품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다. 별개의 카테고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유기농, 로컬 등의 정책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지구를 위한 고품질 상품을 유통하는 것일 뿐이다. 까르푸 자체의 공정무역 인증 PB 상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

소에 공정무역 인증 상품을 함께 진열하는 것, 까르푸가 공정무역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향후 국내 슈퍼마켓 체인과 카페에서 공정무역 인증 상품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될 수 있다.

까르푸 벨기에 매장에서는 단순히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베이커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코코아를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로 대체했다. 이로써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마크는 까르푸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다. 국내 카페에서 공정무역 인증 커피와 함께 판매하는 빵에 들어가는 코코아도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를 사용한다면,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게 각인될 것이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세계 속의 공정무역

최근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의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생산자와 생산지의 현실이 곧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했던 지난 5월,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생산자조합들을 효과적으로 돕고자 '공정무역생산자구호기금(Fairtrade Producer Relief Fund)'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국제공정무역기구 산하 대륙별 생산자 사무소(생산자 네트워크, Fairtrade Producer Network)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전달됐다. 생산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정무역기구 산하에 크게 3개 대륙 사무소(아프리카, 중남미-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가 있는데, 이 조직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담길 수 있도록 한다.



까르푸 베이커리 공정무역 코코아 사용

아시아-태평양 생산자 네트워크(Network of Asia & Pacific Producers | NAPP)에 따르면 공정무역생산자구호기금 €761243.74(한화 약 10억 7천만 원)는 생산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하고,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품목별로는 커피와 차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한다.

한국은 커피 수입의 절반을 중남미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중남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국제공정무역기구 남미-캐리비언 대륙 생산자 사무소(Latin American and Caribbean Network of Fair Trade Small Producers and Workers | CLAC)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 총 188건 \$440,177 (한화 약 5억 2천만 원)의 구호기금이 승인됐다고 한다. 그중 국가별로는 페루와 콜롬비아에 사용처별로는 생물안전의정서 이행 및 생산비용 충당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예가체프로 유명한 에티오피아가 위치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아프리카 생산자 네트워크(Fairtrade Africa | FTA)가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조합들을 지원하고 있다. FTA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미약한 방역 및 검사체계를 고려할 때 현실은 드러난 수치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 정부는 강력한 섣다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커피의 수확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위와 홍수, 메뚜기 폐의 습격으로 농경지도 초토화되었다고 한다. 공정무역생

산자구호기금은 지역별로는 동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에, 품목별로는 꽃과 코코아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구호기금으로 인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공정무역구호기금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필수 식품 등을 공급받아 건강과 일 모두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공급망의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잘 이겨낼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무역의 대중화에 힘쓰고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을 마치며 엘살바도르의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조합 El Sunza(엘 순사)에 속한 한 생산자의 말을 전한다. “공정무역생산자구호기금 덕에 요즘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도 큰 혜택을 받았어요. 쉽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수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Coffee&Tea



김민지 대리
現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리